

교회 목표

신랑 예비
천국입문 양성
만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주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서 1:21)

주관 후원

자녀 수모예배 때
고난 중에서
(시 27:7-14)

시편 27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서 그랬던 기도와 비탄의 시집이다. 기독교가 온층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절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상항을 초월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그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이시에서 구원의 소망을 찾았다. 고난 가운데 빠진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구원의 방도를 찾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고 그 때를 향하여 구원의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지사 응답하시라"(시 27:7).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구원 해 줄 것을 간구한 것은 다윗만이 아니었다. 이만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은사를 의지하였고(사 63:7), 벼를 익히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에 동생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였다(창 24~5).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신들만 자를 고치시고 돌리버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라고 하셨다. 진실로 하나님의 긍휼을 버리는 일이야말로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변함없이 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할 수 있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성이 되셨나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시 27:9).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832년 그 긍휼하심은, 진실로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나 친구 사이의 우정보다도 더 깊고도 더 오래된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무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창 22:3,9).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 다윗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엄습해왔지만, 그는 늘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총의 현상에서 늘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을 보을 수 있었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으면서 여호와와 은혜 볼 것을 만났노라"(시 27:13). 이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아벳노그는 골방수 속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총을 만났고(창 28:20~27), 다니엘은 골방수 사자로 거룩한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던(단 6:22~23).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곳에 일한 은총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썩은 시체 냄새와 죽음의 기운으로 가득찬 애송골의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은총의 하나님. 진실로 그의 은총은 그 가 임재하셨음을 알리는 명확한 증거이다.

나는 여호와를 바랄지니. - 마귀는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자 사기를 준비하였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한때도 불만을 고난을 준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적으로는 불만을 시인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의지할까?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이 좌인 우위를 하나님 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라고 18:33.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믿주소 19). 주께서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여,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확신하시라(시 27:1).

신랑 예비에 대한 제안(5)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까지는 '신랑'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자. 사실 '진정'은 신학과 무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모두가 예배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을 주관적일요 '진정'은 객관적이라는 측면에서 구별할 수 있다.

진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진리를 의미

우리가 '진정'에 대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양이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또는 '특별한 사랑'나 '절대적인'를 소유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진정은 하나님의 특별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 무지한 지식을 말한다. 이것을 알고자 할 때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맹목적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하나님과 진리를 완전히 일치하여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배는 신학적이지 아니요 영적인 것이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일 뿐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고 구약사전에 계시된 대로의 참 하나님께 향하게 될 것이었다. 진자 예배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표현되는 진정은 하나님 자신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그분의 성품의 본체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그분의 모든 말씀들과 행위들에는 진리의 신적 표식(hallmark)이 따라붙는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에서 우리나오는 예배이며 진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식 가운데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경배에 대한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종교에서든 무관할 수 있는 감성주의(sentiment), 종교적인 생각, 교회 건물 안에서 맞닿는 신미적인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한 '진리'는 '성실'이라는 낱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말이다.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은 사마리아인들의 무지한 성경지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빗대어 한 말이기기도 하다. 예배는 진리의 열매와 정성에 앞서, 먼저 성령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따라 드려야 하며, 율법을 행하는 '진정'한 진리의 본체 가 되신 것이요, 율법 대신 복음의 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러므로 '진정'의 의미를 이해할 때, 바.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미덕으로서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성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 무지한 지식을 말한다. 결국 사마리아인들이 지니었던 바와 같이 예배는 '어둠에서 가 아니라' 무엇으로(영으로) 또는 어떻게(게시)에 따라 드려지느냐 문제이다. 즉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에 따라 참과 거짓으로 구별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3월 14일 금요일

십자가의 승리

III. 성육신과 부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주제는 "그리스도의 낮아짐(참선과 높임)이심"이며,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성육신이 역사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면 부활은 영원을 의미한다.

1. 낮아짐과 높아짐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토록 낮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최소 인하여 불망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취한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마치 예멘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쇠이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지신 것이아름 8:3.

한편,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가 영원토록 완전하게 낮아지신 것이요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겸손과 낮아짐을 드러내신 것이지만, 그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지니셨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신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신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행세를 그대로 취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20:35).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평범한 태도를 취하시며 평범한 대화를 나누셨고(요 20:26), 인간 그대로의 상식적인 대화에도 질문과 응답을 표현하셨다(창 24:38~39).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행세를 그대로 취하여서만 영원한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킨 것이아(행 1:11).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아(빌 3:21).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 즉 지신 인간의 행세를 영원한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킨 그의 부활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비이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가장 찬란 찬란의 모습을 취하셨으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었고, 아버지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본래의 영광보다 뛰어난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신 것이아(계 1:13). 즉, 인간의 몸을 입은 채 변형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육신하시기 전에 영원한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영광보다 조금이라도 덜하거나 못하지는 모습이 아닌 것이아(1:15).

2.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구원을 얻는 것과 관계되고, 그의 영광의 몸으로의 부활하심은 구원의 완성과 관련을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과 그의 인간의 모습을 상실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과 보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오직 '영광의 몸'으로 만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에 바작과 아담(12:22,48).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만민 안에서 만물을 준비하여 새창대(창 1:26).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도 과거와 같이 사담으로 남아계신 사실은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오직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성육신이 빛을 발하게 됨을 의미한다.

3. 역사적인 형체와 영원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역사 한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행세를 입으신 것은 '바작과 아담'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즉 '그가 바작과 아담'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행세를 입고 오셨으므로 구원자이신 인간이 영화롭게 되는데 성육신에 대한 기본사상을 의미한다. 그는 겸비하신 자위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함으로써 바작과 아담으로서 영화에 이르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 세상 안으로 오신 역사적인 행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역사적인 행세를 영원으로 삼은 것으로 깨달아야 하는 대개적인 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영원한 영광의 아담으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삼기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마 20:28),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마 28:10). 즉,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자아에게서 우리를 만하시자마자 우리 안에 영원한 영광의 신분을 획득하게 하신 것이며, 그러한 구속을 기초로 그의 거룩한 성품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고 있다(히 1:3~4). 우리는 그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와 같이 우주 역사의 중심점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은, 곧 개인이 자아 속의 중심점이 되고 또한 창조의 목적이 됨을 분명히 한(창 1:3~18).

MASTER OF WIND AND SEA

(Mark 4:35~41)

"...And being aroused, He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Hush, be still.' And the wind died down and it became perfectly calm. ... And they became very much afraid and said to one another, 'Who then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Many Christians are familiar with today's Bible passage concerning Jesus calming the wind and sea of a raging storm. Even our little ones have heard this narrative told many times in Sunday school. It is a true story that took place on the Sea of Galilee around A.D. 28. It was an isolated miracle, a mystery, which significantly relates to our 21st century situation. Jesus' ability to make strong winds and waves gentle demonstrates His greatness. In His presence, the violent storms of life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peaceful. Let me tell you friends, in this world, your surroundings will always have storms. If you're a Christian, you're going to have more storms than unbelievers. When you're with Jesus, the really big storms break out! The good news is that when you keep your eyes on Jesus, everything is calm. The bad news, as a Christian, is that when you look to anything else, everything is troubled.

The cold winds of pain, persecution, and suffering always happen to those who live in the presence of Jesus. Indeed, the life threatening waves of faithful living fall upon our heads like boulders. When you live for Jesus, the world hates you.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of darkness despise you. You can hear the fear of the disciples when they wake Jesus, and ask,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Following their voices of fear is the voice of peace. Jesus rebukes the wind and tells the sea, "Hush, be still." Immediately, all is perfectly calm. These two different voices give us a wonderful witness to the reality of worldly and godly living.

Jesus' disciples were always excited being around Him. They looked at Him as a great Lord and Master, who they were going to make a great success being with. Most of them were experienced fishermen. They knew about the fierce storms that often occurred on the Sea of Galilee because of the valleys descending to the lake, which acted like wind tunnels. They had no reason to fear. They weren't scholars or bakers! They were skilled fishermen who fished on the Sea of Galilee. They knew the character of its water, climate, and wind. Only this time, they woke Jesus because it was a special situation. They looked at this storm as a special case. Otherwise, they would have handled it. They relied on their personal experiences, not God. They still think, talk, and act from pride. Christian leaders often do the same thing. They deal with peoples' problems based on their own experience and talent. When something they can't handle comes up, they look at it as a special case, and then

call on Jesus. The point of these few Bible verses is that they give us a wonderful view of the gospel message. We need to learn from them that Jesus Christ is necessary all the time, not just for "special" circumstances. He is the answer to everything. With Him, all is calm and all is well - always, not sometimes.

Jesus' greatness is not limited. Its depth is eternal, its height unreachable, and its width universal. In Mark 5:1-20, you hear the story of Jesus' greatness over demons. The poor Gerasenes man had over 2,000 devils within him. Just imagine the storm he was facing! In Mark 5:21-43, you hear two stories of Jesus' greatness, one over sickness and the other over death. The bleeding woman just touched the fringe of His cloak, without asking, and received healing. Jairus' daughter was dead, and Jesus just touched her hand and she was alive and well. This is the greatness of our Lord Jesus. He is the Master of the wind, sea, and everything.

Look at Jesus on the boat. He was just one tired and wearied man. He had worked all day long. His body needed rest, so He slept. The disciples knew He was a carpenter, not a fisherman. They knew His experience didn't include the elements concerning the sea and boats, but rather wood and nails. Moreover, He was asleep because He was physically exhausted. Even though the boat was rocking and the waves were crashing in, He was sleeping. The disciples woke Him, not because they thought He could fix the boat, water, or wind, but because they couldn't understand how he could sleep through the danger. Like us, when we face adversity, we analyze situations with worldly things. When we use worldly perspectives, Jesus appears useless, without value. Actually, the disciples were a bit irritated. There was no way they could sleep. Why then was He sleeping? Do we do the same thing? Do we look to money, medicine, or call the police, or use important people to first solve our problems? I'm telling you, this tired man was, is, and will always be Master of the wind, sea, and universe. He was the One who made the water, wind, and world!

Jesus got up and rebuked the wind, and with very few words, told the sea to be still. He just used a little power. He didn't scream and carry on like a maniac. With just a little of His greatness He controls the whole world. He is the Son of God. The man laying down on this small boat in the middle of the sea, exhausted from work, just Him, He is the Son of God. He said, "Be still." Are you listening? Do you wait on Him to feel the presence of God? Or do you feel and hear more of the big storms that come at you on this earth?

Jesus asked His disciples, "Why are you afrai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The reason they had no faith was that they analyzed things from their own experience. They relied on earthly things. The Bible tells us,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will enter.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cast out demons, and in Your name perform many miracles?'" (Mt. 7:21-22). Obedience to the will of God comes first. There are many disciples, great Christian leaders, who don't know the Lord. They don't rely on Jesus for everything. They don't follow God's will, but instead use their own experiences to guide them.

Jesus' disciples were afraid (cowardly) at first, then they were afraid (reverential) with respectful awe for the Lord. In exclaiming, "Who then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though not yet comprehending fully, they acknowledged that He was greater than they thought. Who do you think He is? The whole world is watching you, from all different angles. The storms come in all different forms, from small arguments and little diseases to full scale national wars and death. Where is your source of power? Does it come from your own pride and experience? The gospel, the real gospel, challenges you for your eternal life, eternal blessing through the big storms, through the power of death. Where is your faith? ♣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

예수께서 사나운 풍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을 소개한 오늘의 성경본 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친근한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이야기를 주치려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은 A.D. 28년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장소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과 신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21세기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은 그의 위대하신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의 임재하심으로, 인생의 성난 폭풍은 잠들어 평화로워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에서도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려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큰 폭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진실로 그 큰 풍랑은 소멸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킬 때 모든 것이 잠잠케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은 혼란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종류의 음성

예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고통과 박해와 고난의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위험하는 물결은 우리의 머리를 돌처럼 털구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위하여 살 때,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들의 세력과 권세는 여러분을 경멸합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이 예수를 깨울 때, 두려움으로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38절).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에 찬 목소리에 뒤이어 평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39절). 즉시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음성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현실과 경건한 삶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필요하신 분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주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성공을 이룰 능력을 가진 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로서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터널에 갇힌 바람이 불듯이 갈릴리 바다가 호수를 향해 경사진 폭격 때문에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학자나 뱀 굶는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농숙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과 기온 그리고 바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만큼은 너무나 특별했기에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폭풍을 자신들이 헤쳐나갈 수 없는 특별한 경우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그들은 주님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지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도 자주 이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룰 때 자신들의 경험과 재능을 기초로 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특별한 경우로 보고 그래서야 예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오늘의 성경본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도는 단지 특별한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대답이십니다. 그와 함께 하면, 모든 것은 잠잠케 되고 신은 아십니다. 단지 어떤 대안이 아니라 언제나지 말입니다.

무한한 능력의 구주

예수의 위대하심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깊이는 영원하고, 그 높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높이는 우주적입니다. 여러분은 마가복음 5장 12절-20절에서 귀신을 몰리치시는 예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난한 거러사 사람은 2천 이상되는 군대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폭풍에 비유하여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매우 커다란 폭풍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43절에서 여러분은 예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하나는 질병을 몰리치신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죽음을 몰리치신 것입니다. 할루바에 걸린 여인은 어떠한 요구도 없이, 단지 예수의 옷가방 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병고침을 받았습다. 그리고 아이의 딸이 죽었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단지 그녀의 손을 잡기만 하셨는데 그녀는 살아나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그는 바람, 바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유일하신 평강의 주

배에 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하루 종일 일하셔서 몹시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묵수었지 아무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나무와 돌을 제하고는 바다와 배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는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깊이 잠드셨습니다. 배가 바위에 부딪쳐 바람에 파산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잠에 빠질 만큼 피곤하였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를 깨웠으니, 그것은 예수께서 파선의 위기에 몰려 가는 것과 거친 물결을 그는 거센 바람을 어떻게 해보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도 잠들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역경에

바람과 바다의 주인 (막 4:35~41)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고 하였더라”



김성관 목사

직면할 때, 세상적인 것으로 상황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예수는 가치도 쓸모도 없는 분으로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다소 초조했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편안한 잠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주무셨던 것일까요? 우리도 그분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돈이나 의술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또는 경찰을 부르거나 중요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처음으로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분주함으로 고단한 삶을 사셨던 분, 지금도 마찬가지며 앞으로도 언제나 바람과 바다와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물결과 바람과 세상을 고요하게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매우 간단한 말로 잠잠하라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약간의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소리를 지르지도, 광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단지 간단한 말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단지 예수께서는 그의 위대함 가운데 극히 일부분으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조그마한 배 안에서 사적으로 인하여 피곤함을 달래려고 누워계셨던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하여 그분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드는 커다란 폭풍의 굉음을 느끼며 듣고 있습니까?

경험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40절)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였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적으로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의탁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고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마 7:21~22).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영원한 권능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자랑하는 많은 기도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를 완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경험을 사용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결국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폭풍으로 인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41절)라고 소리치며 주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전사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여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폭풍은 조그마한 평정과 하찮은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간의 전쟁과 죽음이라는 커다란 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부심과 경험에서부터 옵니까? 복음, 참된 복음은 여러분에게 커다란 폭풍이나 죽음의 권세라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것을 도전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제35대 장로 후보자 명단



김승곤
나이 54
교구 9
지역장
봉사 부서
중동2부 부장
번호:1



안석현
나이 51
교구 5
지역장
봉사 부서
제직회 서기
번호:2



윤석민
나이 51
교구 17
지역장
봉사 부서
영아부 부장
번호:3



이달옥
나이 57
교구 3
지역장
봉사 부서
청년부 부장
번호:4



장철환
나이 55
교구 11
지역장
봉사 부서
중동1부 부장
안수집사회장
번호:5



정선현
나이 51
교구 17
지역장
봉사 부서
중동3부 부장
번호:6



함철주
나이 54
교구 12
지역장
봉사 부서
유치부 부장
번호:7

(가나다 순)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①

올해부터 각 교구 지역장을 중심으로 단기 선교가 새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간총천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 각 교구 지역장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선교위원회 행정팀 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이번엔 처음이신 건가요?

보내는 선교로서는 오랫동안 봉사했지만 실제로 가는 단기선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몇 번 단기선교를 가고자 시도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했었습니다. 올해 지역장으로 단기선교를 꼭 가야만 하고 직장의 상황도 많이 나아져 갈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7월 말에서 8월 초에 걸쳐 루마니아로 단기 선교를 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설레임도 있고, 새로운 신앙적 도전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대도 됩니다.

2. 지역장 중심의 단기 선교팀 구성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장들과 위임 목사님과의 면담시간에 위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단기 선교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방향이 잡히니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길 될 것 같은데, 팀장으로서 영성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부담이 됩니다.

3. 이번 단기 선교가 보내는 시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직접 팀장을 보내시니 어떤 느낌이 드시지요?

단기 선교를 다녀온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을 몸소 느끼게 되겠죠. 이전부터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팀장의 역할 중 행정부분을 많이 줄이고 영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겠습니다.



김태식
6교구 5지역장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②

1. 선교위원회 행정팀 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이번엔 처음이신 건가요?

카자흐스탄으로 8월초에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9명의 단원들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직 선교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달란트를 잘 살려 단기 선교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 팀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팀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선 팀원들의 신앙을 위해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격려를 아끼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그들의 달란트를 살린 선교를 할 수 있겠죠. 선교지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이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작년엔 대학부와 알렉산드리아를 갔을 때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은 전도가 금지된 지역에 기에 전도지도 나눠줄 수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찬양뿐이었습니다. 찬양을 시작할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지와 성경책을 요청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팀원들이 가진 달란트가 그렇게 긴요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창식
7교구 3지역장

점점, 우리는 복음의 사도 ②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간증과 각오들을 풀어놓는다.

그들의 간증과 각오들을 통해 복음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고
올 한 해의 단기선교를 계획해 보자.

처음 터키로 선교를 가기 전, 선교가 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CMTC훈련을 받을 때, '전도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 강의 역시 저와는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삶이 바뀌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전도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경찰이 새벽에 숙소를 들이닥치기도 하고, 법정까지 가서 재판관을 받는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녀와서는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보혈에 빚을 진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선교를 다녀와서는 선교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었습니다. 잘 들리지 않던 금요집회와 설교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사도바울의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는지.

저는 예수님과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그 빚에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부락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 보혈의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빚진 자입니다.



백세준 (대학부)

(현정섭 기자)

제16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강두형**

나이 55
교구 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예배안내위원

번호: 1

**강석화**

나이 51
교구 1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예배안내위원

번호: 2

**강신천**

나이 49
교구 1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3

**강임구**

나이 44
교구 1
봉사 부서 천양감독

번호: 4

**강종목**

나이 58
교구 1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교구간사

번호: 5

**권오준**

나이 59
교구 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6

**김상철**

나이 52
교구 9
봉사 부서 유아부 교사

번호: 7

**김양준**

나이 57
교구 1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새가족부 교사

번호: 8

**김영환**

나이 47
교구 14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9

**김원호**

나이 56
교구 16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차량안내부

번호: 10

**김윤환**

나이 54
교구 17
봉사 부서 중등3부 교사

번호: 11

**김재춘**

나이 59
교구 1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소망부 교사

번호: 12

**김재홍**

나이 57
교구 1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새가족부 교사

번호: 13

**김종훈**

나이 48
교구 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중등2부 교사

번호: 14

**김철남**

나이 46
교구 8
봉사 부서 전도회장
중등2부 교사

번호: 15

**김해길**

나이 61
교구 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소망부 교사

번호: 16

**나승은**

나이 52
교구 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17

**박석봉**

나이 57
교구 1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장년1부 교사

번호: 18

**박원화**

나이 46
교구 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차량안내부

번호: 19

**백봉선**

나이 40
교구 5
봉사 부서 고등부 교사

번호: 20

**신진수**

나이 61
교구 2
봉사 부서 전도회장

번호: 21

**심화민**

나이 59
교구 10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예배위원

번호: 22

**윤병식**

나이 52
교구 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중등1부 교사

번호: 23

**윤상철**

나이 51
교구 16
봉사 부서 전도회장

번호: 24

**윤선한**

나이 54
교구 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차량안내부

번호: 25

**윤성열**

나이 54
교구 6
봉사 부서 전도회장
소망부 교사

번호: 26

**윤종극**

나이 54
교구 7
봉사 부서 전도회장
한림유아원장대

번호: 27

**이경재**

나이 44
교구 3
봉사 부서 교구간사
가르디엘원장대

번호: 28

**이기옥**

나이 51
교구 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임마누엘원장대

번호: 29

**이세영**

나이 51
교구 6
봉사 부서 한림유아원장대

번호: 30

**이양선**

나이 42
교구 12
봉사 부서 아멘찬양대

번호: 31

**이인수**

나이 58
교구 16
봉사 부서 차량안내부

번호: 32

**이정태**

나이 50
교구 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유년부 교사

번호: 33

**장금철**

나이 53
교구 12
봉사 부서 유년부 교사

번호: 34

**장철환**

나이 53
교구 9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중등3부 교사

번호: 35

**최민석**

나이 46
교구 4
봉사 부서 한림유아원장대
의료선교부

번호: 36

**최세진**

나이 55
교구 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교구간사

번호: 37

**한만희**

나이 59
교구 1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예배안내

번호: 38

**현준봉**

나이 45
교구 16
봉사 부서 중등2부 교사
신교도실행위원

번호: 39

**김정근**

나이 45
교구 제3교육위
봉사 부서 예바다부 교사
(청각장애인
특별지원)

번호: 40

구역탐방

민음의 말

1교구 테헤란 구역/구역장 남경자



구역장이 전도에 대한, 한 비유로 말씀의 교제를 시작하였다. 전도를 하해보면 “제가 한 게 없어서”라고 말하며 자신은 죄인이라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 물으면 “제가 한 게 없어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겸손한 듯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구원을 인간의 공로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위하여 일함의 공로라고 행한 인간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한 게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구원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믿지 않고 인간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선행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선행을 해야 구원받겠다는 잘못된 생각과 관념이 은연중에 남아있어 하기 싫은 선행과 하기 싫은 전도를 억지로 한다. 그래서 선행을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낸다. 하지만 자신의 공로는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초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질 자격이 없으며 주님의 은혜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성령에 이끌림으로 마귀와 행위가 일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마귀와 몸이 일치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 한 성도는 “식당을 경영하는데 피지 못할 사정으로 주일에 식당문을 열 경우, 죄책감과 부담이 마음에 크게 온다”고 했다. 이러한 경우가 마음은 주께 속했는데, 행위가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선행을 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의 고백도 있었다. 그리고 자녀의 신앙 성숙을 위해 고민하면서도 실패한 믿음의 말을 못 해주고 있다는 고백도 있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위선적인가? 우리 신앙의 내면과 외면은 얼마나 많이 다른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킬 수 없다.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 속할 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될 수 있다.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벧 2:6). 자, 이제 외면과 내면의 불일치로 고뇌하지 말고 율법의 완성성이 주님께로 나아가자.

(권요셉 기자)

다음 주일 찬송

419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이 찬송을 작사한 메리 앤 베이커(Mary Ann Baker, 1831-1922)는 어려서 부모를 여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동생마저 결핵으로 죽었다. 메리 앤 베이커는 이러한 비극적인 삶 속에서도, 뉴욕 라스트로 아카데미의 음악부 주임교수이며 그 곳 찬례교인 오르가니스트 겸, 찬양대 지휘자인 호레이시오 리치몬드 파머(Horatio Richmond Palmer, 1834-1907) 박사와 “그리스도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심”이라는 당시 주일학교 공과를 주제로 찬송가를 요청하자, 이 찬송을 작사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같이 인생의 풍랑도 잔잔케 하실 것이라

1절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싸여 피할 줄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돌아 봄니가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우시라 합니까
2절 구주여 물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갈아서 불만에 싸여서 사나 날 불몰여 주로서 세상의 풍파가 내를 삼키려 합니까 지금 고개 뒀 날 돌아 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3절 사나온 광풍이 지고 큰 물결이 그치지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히다 구주여는 함께 가서 떠나서 맘소리 복된 항구에 들어가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후렴 큰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 잔잔해 사바게 뛰노는 파도나 저 총명한 마귀나 아무 것도 주 편히히 침들어 부신 배 뒤 엮어 놓는 능력이 있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찬양위원회)

+양호실

1교구 조계진 권사(여80세) 심장에 무리가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기동과 대화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1교구 심천희 성도(여68세) 집에서 넘어졌는데 척추 부위를 다쳤습니다. 다친 척추 부위를 치료 중이며, 내일 수술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되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김기준 성도(남66세) 당뇨와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년 간 병석에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이 하루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시편묵상

시편 133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즉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시편 133편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예수께서는 일부 제자와 함께 사역하셨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 이것이 공동체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형제, 자매간에 자기 주장, 경쟁과 분노,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한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힘겨운 과정을 왜 감당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렴 곧 아론의 수렴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시 133:2). 이 그림은 출애굽기 29장에서 나온 것으로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임명하는 모습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출 29:7~9).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성령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성령으로 기름부으셔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서로를 섬기도록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안에서 서로에게 계명을 이행하면서 기름부는 받은 제사장으로서의 교제를 임하여 할 의무가 있습니다(마 22:39).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죄짓기를 멈출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133편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 자매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서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혈통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시 133:3a). 유대 사막을 적시는 혈토산의 이슬을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마지막 절은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삶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3b)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의 모든 사역을 행하시며, 그 사역의 궁극은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우리가 한 목표이신 하나님을 향해 같은 믿음의 길을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기로 돕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동행자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교제를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히 10:25).

(엄혜련 기자)

세·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36	시정자	1	장년2부 이진규(6)	244	이은혜	11	장년2부 이정우(2)	252	전지연	19	대학부 정순옥(2)
237	채규갑	1	장년2부 신한선(17)	245	이영광	11	대학부 이정우(2)	253	이다혜	19	대학부 전계석(7)
238	하루하루	2	장년2부 황명태(2)	246	김효실	12	청년2부 문운중(12)	254	이승기	19	대학부 전계석(7)
239	나삼주	3	장년3부	247	김경희	19	장년2부 이영환(2)	255	남미수	19	대학부 최선경(19)
240	김수자	3	장년3부	248	김효정	19	청년1부	256	심주희	19	대학부 홍정민(19)
241	김민영	7	장년2부 공성영(7)	249	도유리	19	청년1부 이은옥(19)	257	장기환	19	대학부 전옥희(7)
242	한재욱	10	소양부	250	이영애	19	청년1부 사옥선(5)	258	조은	19	대학부 전혜정(19)
243	김두옥	10	청년2부 이옥월(7)	251	김신미	19	청년1부 강옥련(1)				

※ 출생연도와 한 자릿수가 뒤집혀 표시되는 분은 본당 203호 서쪽쪽 목록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으로 변화되는 시기

오 수 빈 (중등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몸으로 드디어 중학교에 올라가 아이도 소년도 아닌 청소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청소년이 됐으면 이제는 사춘기가 와서, 육체적 변화도 있고, 심리적 변화도 있을 것이다. 그런 변화를 겪어가는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다.

우리는 짙은 피우고 딱딱도 피워 이제 줄기가 뻗어 나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만일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줄기가 떨어져 나가거나, 사들거나, 엉켜버릴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우리는 꽃을 피우고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우리가 참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내 맘대로 하면 나쁜 열매가 되어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 내 생각에는 정말 완벽하게 이 모든 일을 해낼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지해야 한다.

중등3부 겨울 수련회 소감문



♡ 이번 수련회가 좀 달랐던 점은 내가 면리회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면리회에 들어와서보니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노력과 시간을 알 수 있었다. 힘들게 준비한 프로그램에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것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뿌듯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4조)

♡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겨울 수련회를 했다.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특별히 '천로역정'을 할 때에는 힘들어서 울 뻔했다. 하지만 이번이 중요한 것을 배웠다. 나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다. 그럴 걸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난 잘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무거운 짐을 지시고 골고로 언덕을 올라가셨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수련회가 끝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3조)

♡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로 언덕을 올라가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을 천로역정 때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몇 배 아니 몇 천 배 이상의 고통을 받으셨을 것이다.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 하나님의 넓고 깊은 큰 사랑을 알았을 때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력하겠다. (2조)

♡ 친구들과 함께 온 수련회, 처음에는 솔직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만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놀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많았었다. 첫날 저녁에 들어가 부흥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더니, 다음날 정말 피곤하였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최선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해 후회된다. 그러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분노의 불길과 정욕의 불길들을 말뚝과 십자가로 찔러내어 함을 알았다. 성경책을 많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재미있고 보람찬 수련회였다. (1조)

내 증인이 되리라(행 1:1-11)

구역장 양성훈원 동안 만남을 공부하면서 은혜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주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께 보다는 세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하나'(행 1:6b).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의 회복, 세상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발견하면서도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증인으로 사역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무슨 자격이 있으며 소망이 있었는가! 그저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 가운데 드려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나를 변화시키소서. 내게는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나이다. 다만 주님께 나를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연약을 불드시오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관심이 오직 주님과 주의 나라에 고정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2절을 읽어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행 1:1-2).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사역이 없다면 성령의 약속은 오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 다시 한 번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성령님 복음서를 읽을 때 저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소서. 금요집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이셨고, 40일 동안이나 하나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활 신앙과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의 관심을 특별히 집중시킨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행 1:4b-5)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라. 왜 그러기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곧 주님과 하나님 나라 보다는 세상과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하여 주님께서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주님의 제ream을 바라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솔로 울리 우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행 1:11b).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품게 하시고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복되게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명령과 뜻에 사랑하는 증인교회의 모든 성구들도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지역장들을 중심으로 교구에서 구원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신동자 전도사)

모임

1. 권사 3지희 월례회
일시: 19일(수) 오후 1부 예배 후
장소: 영아수련부
2. 군전지도 3월 월례회
일시: 21일(금) 18:00
장소: 배다나홀

결혼

1. 이점진 군(이전국) 집사, 이종영 권사의 아들, 7교구(수) 9교구(수) 영구(장) 장사, 김후녀 집사의 딸, 16교구 / 3월 18일(토) 12:00, 가톨릭교회
2. 정덕진 군(윤복순 성도의 아들, 영희 대학교)와 이은진 양(이성용 집사, 정국복 집사의 딸, 1교구) / 3월 22일(토) 13:00, 대저동 관음사 17층

별세

1. 박종현 권사
박씨종 집사의 모친, 김자현 집사의 장모, 8교구 금교3구역 / 3월 9일 별세, 3월 11일 장례
2. 장유림 성도
박신자 권사의 남편, 11교구 목정구역 / 3월 9일 별세, 3월 11일 장례

주소 변경

1. 정부조 안수집사, 전경국 권사
경기도 용인시 구갈읍 마곡리 삼가마을 삼성대미안1차 APT 105동 1302호
☎031-287-1288

◆ 동서물노회 제63회 정기노회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목사 고시 청원감다소서서 고시 문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항
 - ② 감다소 인허 및 고시 청원
 - ③ 전도사 고시 청원
 - ④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 ⑤ 신학 계속 추천 청원(총신대학 및 총신대입학 재학생)
- 제출마감: 2022년 3월 20일(목)까지
- 접수 및 문의: 사무국 총무부 ☎ 552-8200 #404

◆ 감사위원회 전반기 회계감사 실시

1. 기 간: 2003년 3월 ~4월
2. 대 상: 각 부서 회계전도제 제외
3. 장 소: 감사위원회(교육관 302호)
4. 준비서류: 사전표 (2002년 12월, 2003년 1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통장

◆ 인사사항

1. 5교구장 대행 / 이병학 장로
2.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 김현제 장로

◆ 공동의회

1. 일 시: 2003년 3월 23일(다음 주) 4부 예배 후
2. 장 소: 본당
3. 대 상: 등록 세례교인
4. 안 건: 전록, 안수집사 투표권

이번주 새벽기도회 답람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주일)
설교자/기도자	여성기/박덕양	여성기/김용석	여성기/최차용	여성기/마도원	여성기/전용해	김영훈/윤인숙	방준영/신동자

예배 답람안내 (3/19~3/23)

날짜	예배	예배 전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3/19	수요 I		사경전	채해진	하늘에 속한 목(엡 1:3) 정철민 목사
3/19	수요 II		김진호	박찬섭	하늘에 속한 목(엡 1:3) 정철민 목사
3/21	금요일회	특별찬양(소프라노 김송자/알라리테 강신제/이연 찬양대)	김창관	김창관 목사	
3/23	I		김익환	원용철	어미한 사람이기에(마 8:23-27) 김영훈 목사
3/23	II	빛의 사자들(이와 테니 이병진(임파뉴엘 찬양대 찬양리스트)	이국진	안종욱	바람과 바다의 주인(마 4:35-41) 나광만 목사
3/23	III	연호와 하나님 외(소프라노 김소연/할렐루야 찬양대 솔로리스트)	류병복	전홍용	바람과 바다의 주인(마 4:35-41) 김성관 목사
3/23	IV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외(비올린 임지희(중동2부)	이유진	차신득	바람과 바다의 주인(마 4:35-41) 김성관 목사
3/23	V	내 주 되신 주를 참상하고 외(피아노. 안혜림, 나지현(고동부)	이종철	김환기	바람과 바다의 주인(마 4:35-41) 김성관 목사
3/23	찬양		이성숙	김진국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들 171:7 김성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생특별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대 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회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집회	오후 10:30	금요일회 후
		본당 앞 출발

기도회 차량 운행
월, 목, 토전 10:00 / 월, 목, 토, 오후 7:00
(동문경찰집회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3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II 오전 10:3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II 오전 10:3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동 1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동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 연못 받지 않습니다

현재 사무국 및 창구
대기실에서 받은 연못을
이제부터 받지 않습니다.
그 동안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인

교회에서 근무할 직인을
아래와 같이 오직합니다.

1. 모집부문

미회(부)비
사무직(이) - 선교구구
PC방에서 능통자

2. 자격

세례교인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본
교회장 추천서(교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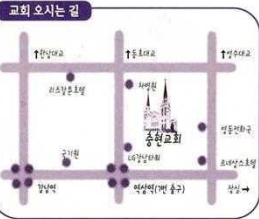
3.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총현교회 사무국 ☎ 552-8200

영남기독교총회

총현기도의장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경서로 통치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한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 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총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님,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우리 백성 전도사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총현교회에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총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위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신교목회	김은호 노광원	오진국 노광원	이병학 노광원
최태민 노광원	엄필성 노광원	강용우 노광원	이 훈 노광원
정운식 노광원	김영길 노광원	조재현 노광원	김종구 노광원
김진태 노광원	이창호 노광원	차신득 노광원	김광남 노광원
이병욱 노광원	안종욱 노광원	임두현 노광원	최기훈 노광원
김종훈 노광원	전홍용 노광원	이정우 노광원	김단용 노광원
한승규 노광원	김영수 노광원	김환기 노광원	원용철 노광원
안동현 노광원	황의만 노광원	김구형 노광원	이계원 노광원
박덕양 노광원	이태식 노광원	정태두 노광원	박용규 노광원
조종환 노광원	배준식 노광원	김영단 노광원	이성호 노광원
최치윤 노광원	노영환 노광원	박철근 노광원	정정길 노광원
강철형 노광원	고계수 노광원	김영은 노광원	김영은 노광원

■ 부목사

이종대 노광원	정철민 노광원	김동하 노광원	서광진 노광원	박기진 노광원
여성기 노광원	류병복 노광원	이종철 노광원	김영훈 노광원	이국진 노광원
김교성 노광원	이수근 노광원	이유진 노광원	안창덕 노광원	방준영 노광원
나광만 노광원	정진호 노광원	김성관 노광원	이성숙 노광원	고광환 노광원
김창관 노광원	원진관 노광원	김정수 노광원	장 훈 노광원	
임원익 노광원	이희희 노광원	최종철 노광원	하준철 노광원	
전도사팀 노광원	이정철 노광원			
■ 여전도사				
정현희 노광원	신동자 노광원	윤인숙 노광원	한영준 노광원	김민석 노광원
홍순애 노광원	이유주 노광원	김영자 노광원	안태순 노광원	김정연 노광원
조옥자 노광원	강정민 노광원	김정자 노광원	장혜구 노광원	최은진 노광원
전은희 노광원	김정수 노광원	김정자 노광원	이수경 노광원	

- 찬양감독 강인규 ■ 전담지휘자 서준식
- 전담목장 김소연
- 단기선교사 장기영(영) 김기
- 협력선교사 하효섭(이동원)